“‘돈봉투 명단’ 직접 공개하라”

교과부 감사 착수, 도교육청 간부들 당혹

“비리집단 매도” … 당선자 발언에 불만도

15일 전남도교육청의 분위기는 하루종일 뒤숭숭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4명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의 ‘도 교육청 간부 당선 축하금 전달 시도’ 발언과 관련, 교육청 간부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김광현 교과부 상시감찰팀장을 비롯한 4명의 감사팀은 이날 오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도교육청에서 사무관과 장학관 이상 간부 60여명에 대한 인적사항 및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받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의 행적을 추적중이다.

이들은 장만채 당선자에게도 ‘돈 전달 시도 간부 명단 공개’ 등 협조요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교과부의 감사까지 받게 된 교육청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전부터 교육청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장 당선자에 대해 강한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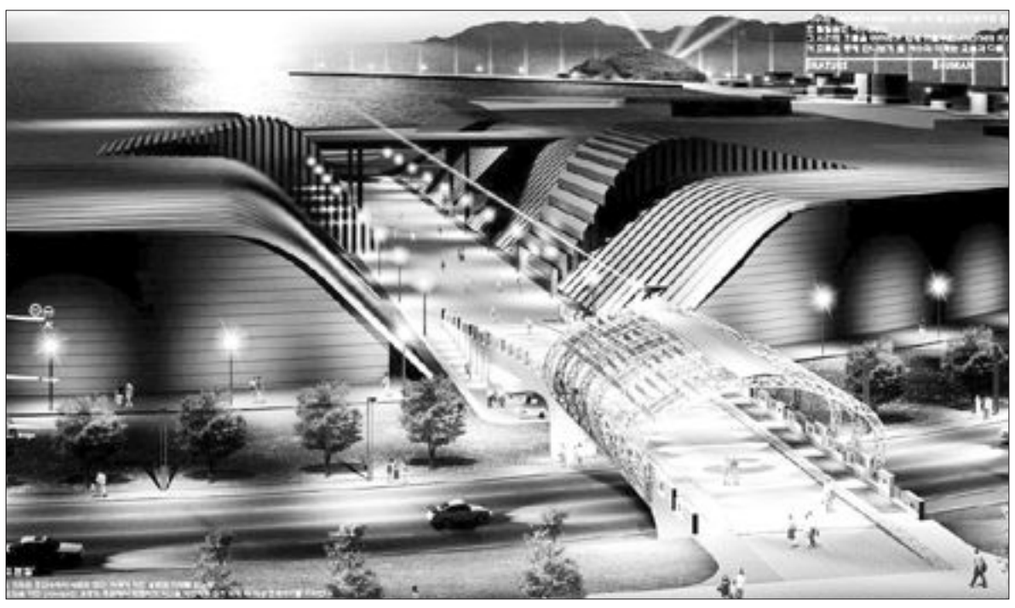
도 교육청의 한 직원은 “전남교육계의 수장이 될 분이 취임 전부터 전체 교육가족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당선자로서 소신껏 발언을 했으면 누구인지도 밝혀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소수 교직원의 이른바 ‘돈 봉투’ 사건으로 전 교직원이 부패한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교과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전달자 신상을 공개해야하며, 장 당선자도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당선자측 관계자는 “교육계의 나쁜 관행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한 말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명단 공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 당선자의 명단공개가 없는 한 ‘돈 봉투 전달 시도’ 간부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교과부의 검찰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엑스포브리지 설계 공모 당선작 2012여수세계박람회장과 엑스포 타운을 연결할 엑스포브리지(Expo-Bridge) 설계 공모 당선작. 15일 발표된 당선작은 바다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잘 표현했다고 조직위는 밝혔다. 당선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조직위는 67억원을 들여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1년 8월가지 완공할 계획이다. 〈여수박람회조직위 제공〉

시·도 교육청 분야별 평가 광주시교육청 전국 3위

전년보다 3계단 상승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한 전국 3위에 올랐다. 전남은 지난해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광주는 7개 시 지역에서 3위, 전남은 9개 도 지역에서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지역에서 각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분야 1위와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분야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 다양화·자율화,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사교육비 절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분권화에 따라 교육청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학생능력 증진▲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사무실 인수 시점

교과부 “취임 1개월전이 타당” 유권해석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자 중 유일하게 오는 11월 취임이 예정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사무인수 인계 시점은 취임 1개월전이 타당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5일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인수위원회와 인수지원단의 구성 시기는 임기개시 1개월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또 “당선자와의 업무협의는 인수위원회 구성 뒤 1개월전부터 협의를 통해 당선자 업무 파악 및 시책구상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방교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정확한 사무인계·인수를 통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현 교육감이 교육·학예·사무 집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휘국 당선자가 현 안순일 교육감측에 인사와 조직개편안, 예산편성 협의 요구 등을 하면서 빚어진 갈등과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장 당선자측은 그동안 “무상급식 등 선거공약과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편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 교육청에 사전협의 등을 요구해 왔다.

한편 2006년 11월7일 취임한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11월6일까지며 중도사퇴하더라도 장휘국 당선자는 취임할 수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항시설 고성방가 금지

노숙행위·광고물 부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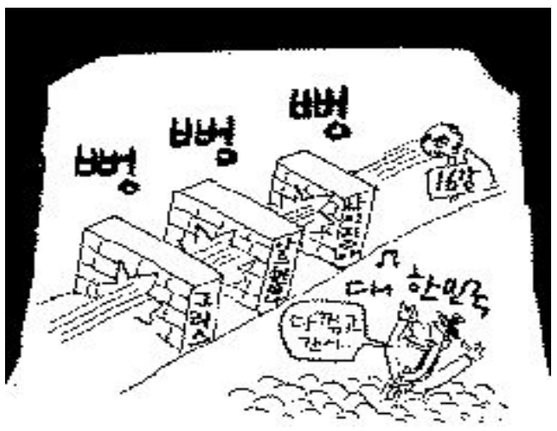
앞으로 공항시설에서 노숙이나 폭언, 고성방가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항시설에서 허락없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허락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시·군·구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점포 수가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 점포 수가 400개 이상인 지역 중에서 매출액.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는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까짓것 못할것도 없다

공무원 명칭 주사·서기 사라진다

주무관·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꿔

행정안전부는 15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주사, 서기 등 계급 명칭을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꿔 호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직명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도 계급 호칭을 지양하고 대외 직명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각종 문서와 명함, 신분증에도 계약직, 기능직, 주사 등 계급과 신분 중심의 명칭 대신 담당관, 국세조사관, 근로감독관 등 일과 업무를 반영한 명칭을 표기하도록 공무원증규칙 등을 개정키로 했다. ‘하위직’으로 불려온 6급 이하 공무원의 통칭은 ‘실무직’으로 바뀐다.

그동안 법령상 근거도 없이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직’으로, 6급 이하는 ‘하위직’으로 불러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간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무안기업도시 예산 집행 부적절

감사원 지적

무안군이 무안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위반해가며 민간인의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등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무안기업도시 건설 관련 감사 결과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는 중국측 투자기관 점검 등을 위해 2007년 1월 소속 공무원 4명을 4박5일간 중국으로 출장 보냈다. 그러면서 이 사업소는 민간인 국외 여비의 경우 지자체의 사업을 위촉, 실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민간인 10명을 1481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무안군은 2008년 9월에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군이 일부 출자한 회사에 다른 출자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출자자가 손실 발생시 최대 40억원을 충당해주겠다’는 내용을 군 의회의 예산 의결 등 적절한 절차없이 결정, 결과적으로 30억4천만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몰린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무안군에 대해 업무처리 적정성 확보 및 관련자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한국 기준금리 올려야”

OECD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OECD는 외화유동성 규제 개정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을 축소하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15일 과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 227-9600 FAX 227-9500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500383
광주C.C
홍 을 식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500344
광주C.C
기 호 풍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 2010느단 418
사 망 자 : 곽형근 (570303-1636339)
최후주소 : 전남 고흥군 풍양면 월치리 960-1
등록기준지 : 전남 고흥군 풍양면 월치리 817
위 망 곽형근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6월 16일
• 공 고 인 : 공두순
• 한정승인수리일 : 2010년 6월 8일
• 공고기간 : 2010.06.16 ~ 2010.08.15
• 신 고 처 : 전남 고흥군 풍양면 월치리 961-4 공 두 순 (061-834-1747)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

(주)건설전기공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주)나우엔지니어링(이하"을"이라 한다)는 2010년 06월 14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10년 06월 16일
"갑" 상 호 (주)건설전기공사
소 재 지 전남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598-3
대표이사 차 일 선
"을" 상 호 (주)나우엔지니어링
소 재 지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16-1
대표이사 정 순 자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1. 2010년 06월 10일 (주)전원건설("갑")과 (주)동해건설("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 회사가 합병하여 "갑"은 "을"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 등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회사 중 "을"은 상기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과 합병하여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니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그 소유권 전부를 이 공고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6월 16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전원건설
주 소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하장리 943-5
대표이사 : 유 환 수(☎ 063-564-8934)
"을" 상 호 : 주식회사 동해건설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2908번지 3층
대표이사 : 김 성 환(☎ 062-576-8931)

최고 상권 건물 매매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식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 대지 632.9㎡, 건물 2,289.09㎡
• 가격 상담후 결정

월산동 외곽도로변
지상 3층 건물매매
• 대지 374.9㎡
• 건물 299㎡

문의전화 011) 607-5629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 첨단지구
상가 임대 :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권장업종 :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번화가이며 1층에 옷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도로 적합함
450평(조립,제조 회사 가능) 주차대수 30대
■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첨단 ; 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 첨단지구 : 상업지역토지, 모텔부지,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 매도(다수보유)
■ 첨단지구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번화가; (옷매장 약 60평 임대)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열쇠
☎ 062-383-8982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고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부동산 담보 대출
• 아파트 후순위 대출 (시세의 80%)
• 임대아파트 특별대출 (임대금액의 80%)
주택 · 논밭 · 임대 나대지 추가 대출
최저금리
분할 상환 가능
금융(부동산 투자) 고소득 안내
- 사업확장고정직(퇴직자우대) 이사 초빙
안전한 금융투자 (부동산 담보) 사업안내
- 1억투자→월이자 150만원~250만원
- 2억투자→월이자 300만원~350만원
- 1천투자→월이자 25만원
- 3천투자→월이자 70만원
• 법무사, 업무대행 철저권리분석
등록번호 서구 제 482호 금리연 24~49%
한국금융투자개발
☎ 374-2760